2018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4

제3강좌

호남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

최 한 선

전남도립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중국 절강대학 객좌교수

『면앙정이여, 시심의 고향이여』『전라동도 전라서도』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여의도갈 배추』

일 시 3월 20일(화) 저녁 7시

장 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주최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

호남지역의 구석기 :홍적세 문화

호남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모두 74개소에 이르며, 지표조사를 통해 405개소의 유적이 보고되었다.(약 70만년 전, 불, 뗀 석기(타제석기), 뼈나 뿔 도구, 채집, 사냥)

발굴유적의 수계별 분포를 보면 영산강 21개, 만경강 17개, 보성강 11개, 섬진강 8개, 금강 6개, 남강 1개, 바닷가 6개, 기타 4개이다. 유적이 많이 발굴된 유역은 영산강, 만경강, 보성강,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다.

구석기 문화가 분포하는 제4기 지질연구, 테프라, 꽃가루, 방사성 탄소연대의 해석 등 자연과학분석, 호남·영산강·서해안 도서 단위의 문화연구, 붙는 석기, 측면 몸돌, 좀돌날몸돌, 포인트형석기, 사냥도구 등 특정 석기에 대한 세세한 연구를 비롯하여 호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자갈돌석기 전통, 중기·후기구석기시대 석기군에 보이는 특징이나 성격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남지역의 구석기 :홍적세 문화

중기구석기(BP 7만년 전후) 유적 중 나주 당가유적 1문화층, 화순 도산유적 등은 자갈돌을 이용한 대형석기가 주로 제작되었고, 순천 죽내리유적 1문화층, 함평 당하산유적은 화산암을 이용한 대형 격지석기가 제작되었다. 이들 유적은 하나의 석기를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1950년 기준)

후기구석기(BP 3만년~1만5천년)의 유적은 순천 복다리 신기유적, 장흥 신북유적, 순천 월평유적, 순천 죽내리유적 등이다. 화산암을 이용한 소형 석기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돌날, 세형돌날 등 새로운 제작기법과 크기의 석기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구석기시대와는 달리 하나의 석기가 하나의 기능을 하며, 흑요석·수정 등 양질의 석재를 이용한 석기가 등장한다.

특히 장흥 신북유적 흑요석 재질의 석기는 원산지 분석결과 일본 규슈, 백두산 지역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흥 신북유적 전경과 출토 석기

호남지역의 신석기:충적세 문화

2016년 현재 신석기 유적은 126개소가 확인되었다. 서·남 해안의 해안과 도서를 중심으로 패총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이외 내륙에서는 취락유적, 유물산포지, 적석유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약 1만년 전, 또는 8,000년 전, 간석기(마제석기),후빙기, 생산 경제, 기술의 진보, 촌락 형성, 銅 사용, A군, 농경,목축, 서남아시아, 선무늬토기, 而B군, 즐문토기, 채집, 수렵, 시베리아, 몽고)

전북지역은 내륙에서는 금강상류, 서해안을 중심으로 신석기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중 금강 상류에 해당하는 진안 갈머리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호남 내륙의 중기, 후기, 말기 편년이 완성되었고, 섬진강과 남강 수계를 통해 영남 서부내륙 및 남해안의 신석기 문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남지역의 신석기:충적세 문화

서해안의 패총유적은 오식군도에 해당하는 비응도, 노래섬, 가도, 띠섬, 오식도 등에서 확인되었다. 동물유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석기 패류는 참굴이 97.8% 이상을 차지하는데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굴 크기가 급감하며, 참동, 복어, 광어, 농어, 방어, 상어 등의 어류와 사슴,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육상 포유류,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도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신석기인들은 패류 채집과 어로를 중심으로 수렵, 식물 자원 채집 등 다양한 생계활동을 하고 획득 자원의 가공,조리도 현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남지역의 신석기:충적세 문화

전남 지역은 해안과 도서의 패총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내륙은 섬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순천 대곡리 도룡유적, 승주 쌍암교 유적, 장흥 오복리 유적, 함평 당하산유적 등이다.

여수 안도패총의 경우 신석기시대 매장 풍습과 남해안과 일본 큐슈에 걸친 광범위한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안도에서 출토된 토기는 일본 조몽문화와 관련성이 높아 현지에서 이들 조몽토기를 모방하여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즐문:승문, 조몽인:짙은 눈썹, 쌍꺼풀, 큰 귓볼, 암내, 젖은 귀지, 사각형 얼굴 등-비교: 악마동굴)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돈탁 패총은 그동안 도서지역에 치우쳐 있던 신석기시대 조사를 해안가와 내륙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유적이다.

호남지역의 신석기:충적세 문화

❖ 죠몽토기(승문 繩文)

➢ 일본 신석기시대에 제작 · 사용된 토기

➢ E.S. 모스, 조개무지, 정착생활

➢ "cord marked pottery" 로 부름

➢ 연뉴(連紐), 직접, 압날

(B.C. 10,000년~B.C. 400년)

호남지역의 신석기:충적세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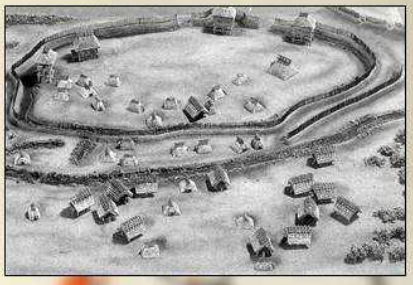
❖ 야요이 문화(미생 彌生)

➢ 일본 선사시대에 수도작(水稻作) 농업을 기초 (BC 300년~AD 300년)

➢ 금속(철, 청동) 사용

➢ 요시노가리 유적(규슈, 사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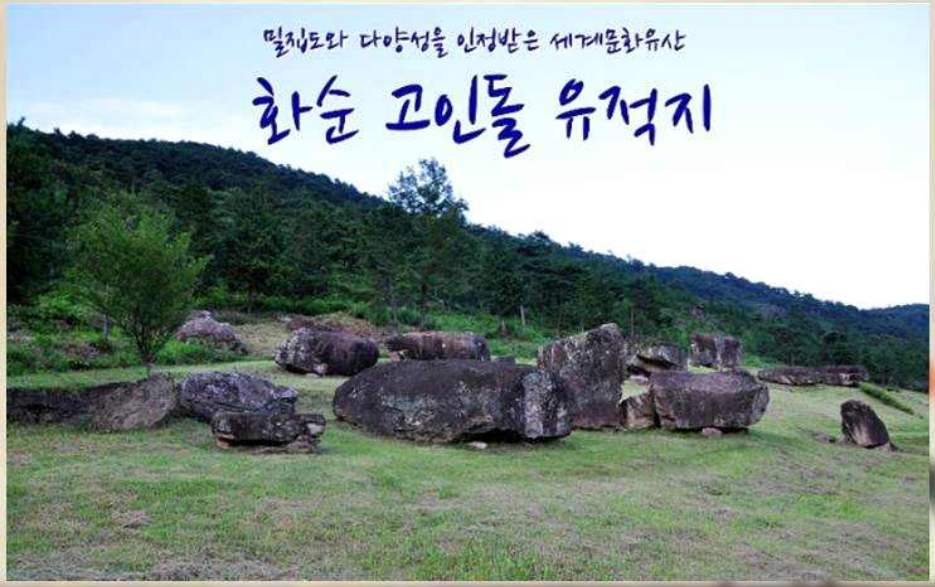
- 吉野ヶ里遺跡（よしのがりいせき）
- 야요이 시대 마을 발전상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유적
- B.C. 3~A.D. 3 (야요이 시대 약 600년)



요시노가리 유적 모형도

호남지역의 청동기 문화

30,000여 기의 청동기(BC 1500-1000) 고인돌 문화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10km, 약 600여 기



호남지역의 청동기 문화

❖ 한국청동기 무문토기
(B.C. 1500 ~ B.C. 1000)

- 세형동검
- 광주(월계동, 평화동)
- 함평(신덕)
- 해남(장고산 고분)

남도문화는 융.복합문화

구석기 시대 이후 6세기 마한까지는 독창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중국 등 외래문화와 융. 복합함

↓

이후 백제문화와 융. 복합을 이루어, 고려의 문화를 꽃 피웠음

↓

조선에 들어 선 뒤, 다시 한성의 문화와 융. 복합을 이루어 한국 문화의 원형을 이룬 문화

언제부터 남도였나?

문헌상 나타난 호남이란 말의 처음은

고려시대 담양 이씨 이성李晟의 <귀전영歸田詠>이란 시에 나오는 "설진호남필마행雪盡湖南匹馬行(눈 그치면 호남 향해 말 타고 돌아가리)" 으로 보이며

그 뒤는 탁광무(卓光茂의, 1330-1408)의 문집인 <경렴정집(景濂亭集)>(권1 경렴정)편액에 실린 해동형승천호남海東形勝擅湖南(우리나라에서 멋진 곳은 호남이 으뜸인데) 상유렴정하유담上有濂亭下有潭(위에는 경렴정 있고 아래에는 용담이 있지)이라는 시구라고 여겨짐

남도라는 말은 강남도江南道의 준말

고려시대 때(성종 14년: 995) 지금의 전라북도를 강남도, 전라남도를 해양도라고 부르다가 두 지역을 합하여 대표 고을 이름인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따서 전라도라 불렀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현종 9년 : 1018)

"강남도" 라 했을 당시 강의 남쪽이 어디인가에 있다.
강남도는 9주와 43현을 거느렸는데 그 경계는 금강 이남 지역이었다. 고려시대 때부터 금강 이남을 강남이라 했음을 알 수 있겠고, 그 이후로 줄곧 금강 이남 지역은 강남으로 불렸다. 그런데 금강 의 다른 이름이 호강湖江 이어서 그 강남은 호남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남도는 지금의 금강 이남 지역을 두고 일컫는 행정적, 지리 역사적 명명임을 알 수 있겠다.

선비의 대이동과 융.복합 문화

❖ 선비의 제 1차 이동

고려 건국(918)과 국정 운영의 주역이었던 호남의 선비들, 그들은 <훈요십조, 943년 태조 임종 무렵 박술희에게 전함, 1034년 최제안이 최항 집에서 발견, 8항, 車峴 이남, 公州江 바깥의 산세와 지형, 背逆, 국가 변란 소지> 발견과 타 지역 선비들의 견제에 밀려 고려 중. 후기에는 중앙 정계에서 크게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최지몽, 도선, 박영규, 신숭겸 등)

주로 경상도를 제외한 고려 후기 관료들은 조선 왕조의 개국이 명분 없음에 항거, 조선에 불복, 불사, 杜門하거나 落南을 선택했다.

선비의 대이동과 융.복합 문화

❖ 선비의 제 2차 이동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1455년)은 의리와 명분에 죽고 살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운명을 뒤바꾼 대사건이었다. 성삼문 등의 사육신과 김시습 등의 생육신이 목숨을 바쳤거나 혹은 세상을 버림으로써 단종에 대한 충성의 다짐은 물론 의리와 절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비들은 명분 없는 쿠테타(coup)에 충격을 받고 벼슬길에의 염증을 느낀 채 영남 또는 호남으로 낙남(落南)의 길을 택했다. 고향인 영남으로 내려간 선비들은 지역 향촌(鄕村)의 경제적 기반에 힘입어 서원 등을 설립, 후진양성과 성리철학의 연구에 전념하였다.

한편, 호남으로 낙남해간 선비들은 주로 지역에 처가 또는 먼 친인척을 두었을 뿐 특별한 향촌에의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 이었다.

선비의 대이동과 융.복합 문화

❖ 선비의 제 4차 이동

수양의 왕위찬탈(1455년)을 필두로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을사사화(1545) 등은 호남으로 선비들의 낙남을 가속화하였다.

광주의 충주박씨, 담양의 문화유씨, 홍주송씨, 나주의 금성나씨와 나주나씨, 해남의 해남윤씨, 고흥의 고령신씨와, 여산송씨 등이 대표적 사례이거니와 그들은 처(處) 또는 은둔지로서 호남을 택하였으며 그후에는 호남에 뿌리를 박고 세거(世居)하여 훗날 곧 성종대 이후 사림(士林)으로 성장하여 호남사림 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영향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왜 남도를 선택하였는가?

㉠ 따뜻한 기후

㉡ 풍부한 물산

㉢ 넉넉한 인심

㉣ 고려 이후 향촌에 정착해온 토착 세력의 개방성과 포용성

㉤ 다도해와 도피의 용이성

㉥ 수도권과의 원격성 등

❖ 누정건립-강학, 시문제작, 애민, 애국, 예술창작

선비의 대이동과 융.복합 문화

❖ 선비의 제 3차 이동

그들은 단지 호남이 한양으로부터 지역적으로 원격한 위치에 있기에 정쟁의 화를 피할 수 있으며 기후가 따뜻한 탓으로 물산이 풍부하며 그로 인해 인심이 넉넉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엽편주의 한 몸을 호남에 맡겼었다.

그러니까 수양의 왕위찬탈 사건은 중앙의 선비들을 영남과 호남으로 은둔 또는 피세(避世)하게 만든 이른바 "선비대이동" 사건의 절정으로서 역사적 가치판단과는 다른 각도로 평가되거니와, 호남으로 낙남한 선비들은 각기 자기 씨족의 호남의 입향조(入鄕祖)가 되었다.

남도를 말하려면

① 수려한 자연 경관

순천만 갈대밭

지리산 천왕봉

남도를 말하려면
② 꼴텅 야무진 마한문화
-금동왕관(나주 반남고분, 국보 제295호), 금동신발
금동왕관
금동신발

남도를 말하려면
③ 누정의 풍류와 시문학
담양
면앙정
광주
풍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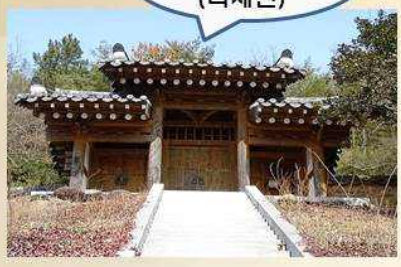
남도를 말하려면 ④ 학문의 열정과 서원교육

광주 월봉서원 (기대승)

장성 필암서원 (김인후, 양자징)

고흥 쌍충사 (이대원, 정운)

나주 송재사 (나세찬)



담양 의암서원 (유희춘)

강진 박산서원 (이후백, 백광훈,임회)

남도를 말하려면 ⑤ 선비의 우리말 정신과 가사문학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호셩 緣연分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ᄒᆞ나 졈어 잇고 님 ᄒᆞ나 날 괴시니,
이 ᄆᆞ음 이 ᄉᆞ랑 견졸 ᄃᆡ 노여 업다.
平평生셩애 願원ᄒᆞ요ᄃᆡ 훈ᄃᆡ 녜쟈 ᄒᆞ얏더니,
늙거야 므ᄉᆞ 일로 외오 두고 글이ᄂᆞᆫ고.
엇그제 님을 뫼셔 廣광寒한殿뎐의 올낫더니,
그 더ᄃᆡ 엇디ᄒᆞ야 下하界계예 ᄂᆞ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三삼年년일쇠.
臙연脂지 粉분 잇ᄂᆡ마ᄂᆞᆫ 눌 위ᄒᆞ야 고이 ᄒᆞᆯ고.
ᄆᆞ음의 ᄆᆡ친 실음 疊텹疊텹이 ᄡᅡ혀 이셔,
짓ᄂᆞ니 한숨이오 디ᄂᆞ니 눈물이라.
人인生셩은 有유限ᄒᆞᆫᄒᆞᆫᄃᆡ 시ᄅᆞᆷ도 그지업다.
無무心심ᄒᆞᆫ 歲셰月월은 믈 흐ᄅᆞ ᄃᆞᆺ ᄒᆞᄂᆞᆫ고야.
炎염涼냥이 째를 아라 가ᄂᆞᆫ ᄃᆞᆺ 고텨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늣길 일도 하도 할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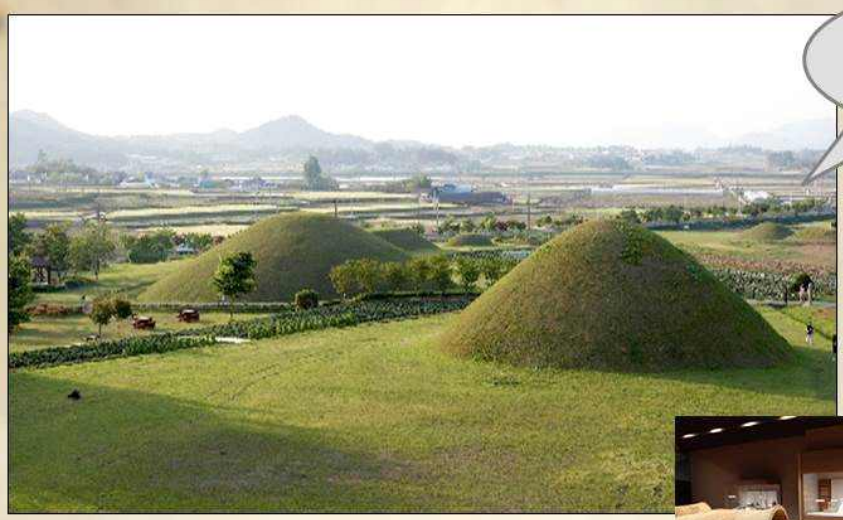
사미인곡 일부
-정철-

남도를 말하려면

⑥ 30,000여 기의 청동기(BC1000) 고인돌 문화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10km, 약 600여 기

남도를 말하려면

⑦ 마한 왕국의 상징 대형 옹관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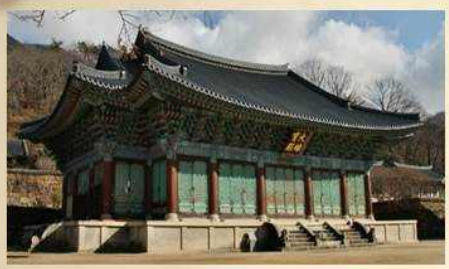


남도를 말하려면
⑧ 탈 신라 정신의 구산선문九山禪門과 고려 건국(918)
장흥 보림사
동서 삼층석탑, 석등, 국보 제44호

남도를 말하려면
⑨ 비취翡翠의 원숙함과 상감청자
청자상감운학매병
-국립중앙박물관-

남도를 말하려면

⑩ 개혁 정신의 기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백련결사白蓮結社



순천 송광사

강진 백련사

남도를 말하려면

⑪ 문학, 사학, 철학, 실학의 거목들

– 눌재 박상, 면앙정 송순, 송재 나세찬, 고산 윤선도 등

⑫ 전국 70% 의병과 구국의 고장

– 건재 김천일, 제봉 고경명,

⑬ 인생유전, 소리유전과 질펀한 서민의 판소리

– 소리, 아니리(말), 발림(너름새: 몸동작), 추임새 등

- 동쪽 우조 소리로 송흥록. 유성준. 송만갑. 박봉술,
- 서쪽 계면조 소리로 박유전. 이날치. 김채만. 정응민

남도를 말하려면 ⑭ 시서화詩書畵 삼절의 예향

<양팽손의 산수화>

<윤두서 자화상>

남도를 말하려면 ⑮ 무당의 노랫가락과 옷맵시

<옷맵시>

<무당의 노랫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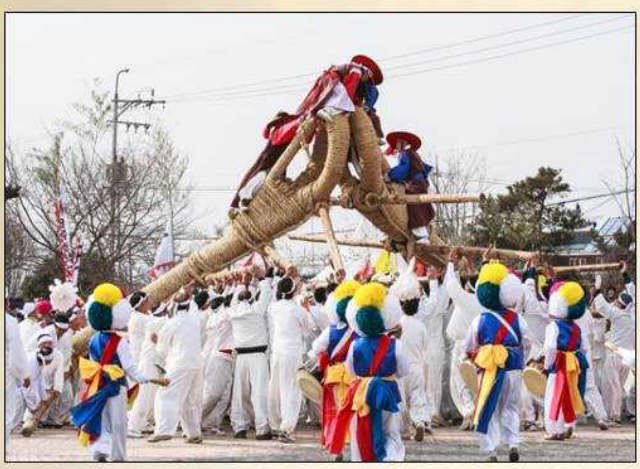
꺾는 목,

화려한 장단,

전조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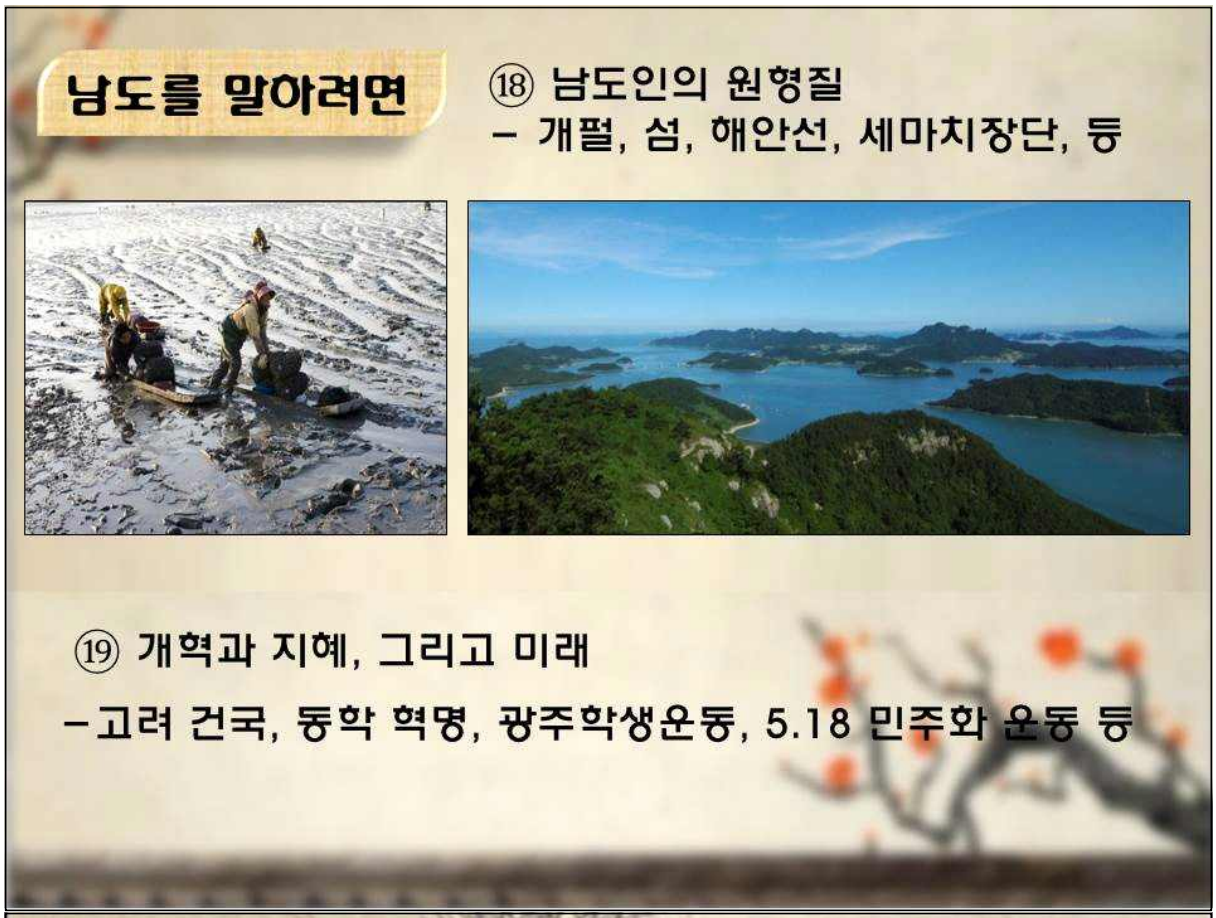
남도를 말하려면 ⑯ 줄을 댕겨라 풍년을 부르자 민속놀이

<고싸움 놀이>



남도를 말하려면 ⑰ 인심도 후할시고 개미진 음식의 맛 –남도한정식, 홍어, 바지락, 김 등

남도 한정식


남도를 말하려면
⑱ 남도인의 원형질
– 개펄, 섬, 해안선, 세마치장단, 등
⑲ 개혁과 지혜, 그리고 미래
–고려 건국, 동학 혁명, 광주학생운동, 5.18 민주화 운동 등

Thank You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이란?

기록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창고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불조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교책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지난해에 등록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총 16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이며,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은 수많은 전란과 인식의 부재로 심한 훼손과 멸실을 겪으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호남지방문헌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호남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굴·집대성·콘텐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호남문집, 호남지방지, 호남서화, 호남누정현판·금석문, 호남고문서, 호남일기자료, 호남한글고문헌, 호남인물검색시스템 등 총 8개 부문입니다. 조사 연구의 결과물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www.memoryhonam.co.kr)와 '호남기록문화유산' 어플리케이션(ios, Android)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강연자료(비매품)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 2018년 3월 20일
※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